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원스톱 지원체계 본격화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 후속조치 부지·전력·용수·인허가 전담 공동군공항 이전·산단 조성 병행 추진 신장성변전소·동북담 인프라 점검 공급망 복선화로 사고 리스크 차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부터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 전이라도 산단 조성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추진'을 선언하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기조에 발맞춘 강력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들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팹(Fab)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부지, 전력, 용수, 인허가, 민원 대응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7일 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전남광주 군공항 인근에서 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로 최종 확정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7일 오전부터 광주 군공항, 장성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 화순 동북담 등 핵심 인프라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의 완전 이전을 기다린 뒤 순차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절차와 개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정부가 강조한 '병행 추진'의 의지를 명

확히 했다. 첫 점검지인 광주 군공항을 찾은 민 시장은 부지 현황과 공사 절차를 살핀 뒤, 군사시설 보안상 상세한 언급은 제한하면서도 "이곳에 반도체 팹을 구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군 유류 저장시설 인근의 환경오염 제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며, 군 훈련 문제만 조율되면 즉각적인 개발 착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장성군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를 찾은 민 시장은 345kV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신장성변전소와 국지도 49호선 축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 검토를 지시했다.

화순군 동북담에서는 취수 및 정수계통과 담 증고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반도체 팹 1기당 하루 약 6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0만 톤 규모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전이나 단수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급망을 복선화하고, 나아가 '복선의 복선화'까지 고려한 완벽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역사적 결단을 내린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임기 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m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수소 다차종 충전시스템 운영

울산시가 수소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한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다차종 충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남구 산업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성능을 개선해 수소승용차와 수소전기버스는 물론 수소 트럭, 수소전기 트랙터, 수소연료전지 지게차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전기 트랙터의 충전시간도 기존 1시간 이상에서 평균 40분으로 단축되게 됐다. 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수소충전소 등 9곳에서도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를 모두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대상

포항시가 경상북도의 '2026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모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달성도와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수출정책 참여 등 1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포항시는 수출전문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딸기, 시금치, 단감, 쌀, 배추 등 수출 품목을 확대했다. 또 러시아, 멕시코, UAE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 농식품 기업의 지역 정착 지원, 생산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경북)=김진민 기자 jin9@

경주시 여름 해수욕장 4곳 개장 준비 완료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오류·나정·봉길·관성 해수욕장 등 4곳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7시 이후에는 입수가 제한된다. 전촌해수욕장은 올해 개장하지 않는다. 시는 해수욕장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부표와 유해생물 차단망, 인명구조함을 정비했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구명조끼 대여 컨테이너도 설치했다. 현장에는 수상안전관리요원 4명과 인명구조요원 37명, 응급처치요원 4명, 해변순찰요원 4명 등 안전인력을 배치한다. /경주(경북)=김진민 기자

영천시 렛츠런파크, 개장 앞두고 모의경주

영천시는 9월 정식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오는 18일과 25일 모의 경주를 실시하며 최종 리허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의경주는 하루 3경주씩 총 6경기로 진행되며, 경주마 수송부터 전산 시스템 운영, 심판, 순위 판정까지 실제 경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전 경주마는 당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영천으로 이동해 신규 마사에서 출전 준비와 경주로 적응 훈련을 마친 뒤 경기에 참가하며, 모의경주 종료 후 다시 부산경남으로 복귀한다. 9월 문을 여는 렛츠런파크 영천은 영천시 금호읍 일대 144만㎡ 부지에 조성됐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충청광역연합으로 392조 투자 뒷받침"

박수현 충남도지사 기자간담회 삼성·SK 참여 첨단산업 투자 대응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를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산업 기반을 갖춘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첨단산업 투자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활용 방안과 정부부지사 임명, 지전담 공론화위원회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민선 8기에서 잘 구축해 놓은 충청광역연합을 보물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



박수현 충남도지사 기자간담회 현장 모습.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전-충남 중심의 행정통합과 달리 충청광역연합은 세종과 충북까지 함께하는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2년 연속 선정

경북도, 사업비 106억 확보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6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영주시 생활안전·산불·녹조 관제 실증사업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산업진흥본부, 국산 반도체 설계기업 딥엑스, AI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업 등이 참여해 '구미 Smart Flow : 온디바이스 AI 기반 국가산업단지 교통·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은 통해 온디바이스 AI CCTV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고 교통량 예측과 교통흐름 최적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드론을 활용해 중앙분리대와 차선,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도로 안전관리 체계도 실증할 계획이다.

또 구미 전역의 교통·물류 정보를 연계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 교통상황과 물류 흐름, 도로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산업단지 운영과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국립창원대, 원전파손 예측 기술 개발

KAERI와 균열·접촉 동시 해석

국립창원대학교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원전 등 첨단 구조물의 파손 과정을 컴퓨터로 예측하는 구조 해석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

국립창원대 GAST-기계공학대학스마트제조융합공학 김재민 교수 연구팀은 KAERI 경수로핵연료기술 연구부 이동화 박사 연구팀과 재료가 갈라지는 균열과 물체가 맞닿아 눌리는 접촉을 하나의 계산 틀에서 동시에 해석하는 구조 해석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계 시스템이나 원전 구조물에서는 접촉과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현상은 성격이 달라 그동안 컴퓨터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했다. 두 물체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닿는지를 매 순간 찾아내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균열이 자라면서 새로운 접촉면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균열과 접촉을 모두 부드럽게 번지는 방식으로 바뀌 하나의 계산 틀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균열은 흐릿하게 번진 손상 영역으로, 두 물체 사이 빈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쿠션으로 표현해 접촉 지점을 별도로 찾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부산 향토기업, 베네수엘라 구호성금 기탁

파나시아·세운철강·SB선보 성금 전달

부산시가 7일 오후 3시 시청 의전실에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호 성금 전달식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부산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인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과 전직 회장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최금식 SB선보 회장이 참석했다.

세 향토 기업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4일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해 수도 카라카스와 북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성금을 기탁한 파나시아와 세운철강, SB선보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꾸준한 성금을 내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세 기업 대표는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또는 전직 회장을 지내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시장의 부산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